꿈틀꿈틀~ 생태 놀이터

어린이 생태탐험단원들 설계

서구 화정동에 66㎡ 문 열어

지렁이 사육장 등 생태 체험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설계한 서구 화정동 생태공원 '꿈틀이 놀이터'가 조성돼 12일 준공식을 갖는다. 이 놀이터를 설계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 동네 초등학생 30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생태탐험단'. 탐험대원은 모두 초등학생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무언가 동네를 위해 '할 일'을 찾던 '동네 꼬마'들은 지난 4월18일 함께 모여 '귀여운 반란'을 감행했다. 동시에 마을 생태지도 작성, 지렁이 퇴비를 이용한 마을 공동텃밭 운영, 마을신문 제작 등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생태마을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교육문화공동체 '결'과 광주 문화유랑단, 동네 어르신들도 이들의 반란에 기꺼이 동참했으며, 첫 발을 내디딘 지 5개월여 만에 그 첫 결실로 놀이터가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서구 화정동 월광교회 맞은편 화정동 제2 놀이터 면적 3천286㎡ 중 66.1m² 공간에 길이 5m의 지렁이 모양의 놀이터는 세계에 하나 밖에 없는 놀이터가 됐다.

또 공원 내 화장실 벽면에는 지렁이 퇴비를 이용해 텃밭을 가꾸는 모습이 담긴 타일 벽화가 새겨졌다. 목재로 된 높이 50㎝의 지렁이 사육장에서는 누구나 지렁이 퇴비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다른 동네 꼬마들도 초청할 계획이다.

이들 대원들은 놀이터로 조성되기 전 잡초가 무성한 빈 공터였던 이 곳이 어린이들의 함성으로 가득할 것을 기대하며, 준공식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어린이 생태탐험대원 서원종(11·화정남초교 4년)군은 "광주에서 제일 살기 좋은 생태마을로 만드는 게 우리들의 꿈"이라며 "생태환경에 대해서도 배우고 동네도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대원들은 또 5명씩 1조를 이뤄 한 달에 두 번씩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생태지지도 만들고, 매주 한 차례씩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도 받고 있다. 이달 말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생태지도 발표회'도 가질 계획이다.

어린 대원들이 생태마을 만들기에 직접 나서면서 마을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아파트 밀집지역인 이 마을에 정(情)이 넘쳐나기 시작한 것이다. 주민 간 교류가 많아지면서 굳게 닫힌 아파트 출입문도 활짝 열렸다. 지렁이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양도 눈에 띄게 줄었다.

교육문화공동체 '결' 민문식 상임위원은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린이들이 주축이 돼 마을을 가꾸는 것이다. 어른들은 단지 조력자 역할만 해줄 뿐"이라며 "따라서 어린이공원은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닌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이용하며 생태문화를 배우는 중요한 교육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어린이 생태탐험단원들이 지렁이 사육장에서 지렁이 퇴비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어린이 생태탐험단원들이 11일 자신들이 설계해 재조성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제2 놀이터 '꿈틀이 놀이터'에서 길이 5m 지렁이 모양의 의자에 앉아 쉬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박영렬 前광주지검장의 '광주 교통안전' 열정

수원지검장 옮긴 뒤 "캠페인 성공" e-메일 편지

올해 광주의 교통문화 캠페인을 촉발시킨 박영렬(53·사진) 전 광주지검장이 수원지검장으로 옮긴 뒤에도 '교통 안전'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담긴 e-메일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지검장은 최근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과 광주지역 언론인 등 100여명에게 광주 교통안전 캠페인의 성공을 확신하는 e-메일을 발송했다.

박 지검장은 e-메일에서 "광주의 교통안전 시민운동은 27년간의 검사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었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민 모두가 참여한 이번 캠페인이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또 "광주는 예향과 의향이라는 역사적 전통에 걸맞게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교통 안전을 위한 시민들과 운동본부 관계자들의 노력은 우리나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작년 시내버스 보조금 293억원

광주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운송원가 3% 인상 예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인해 광주시가 지난해 광주시내 10개 버스회사에 모두 29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표준운송원가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3% 정도 오를 예정이다.

광주시는 11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심의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8년 재정지원금 정산 및 시민서비스와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2009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등 심의안 3건을 의결했다.

시에 따르면 표준운송원가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연료비 산정이 아직 불투명하지만, 표준운송원가 상승이 재정지원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날 심의회에서 발표된 시내버스 회사 10곳에 대한 시민서비스와 경영평가 보고에서 대창운수가 시민서비스와 경영실적이 가장 좋아 1억2천9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시민서비스(1천점 만점)와 경영평가(1천점 만점)에서 대창운수 1천760점, 이어 대진운수(1천695점), 동화운수(1천673점), 대광버스(1천653점), 대원버스(1천613점), 동양운수(1천559점)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 회사에는 모두 4억5천9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회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시민서비스와 경영 상태를 꾸준히 평가하는 등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버스회사들에게 권고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업자에 흉기 휘둘러

광주남부경찰은 11일 빚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하던 중 동업자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박모(40)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자신의 집에서 동업자 이모(4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씨의 얼굴에 13㎝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동업자인 이씨와 남에게 빌려준 110만원을 놓고 말다툼을 하던 중 이씨가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민변 광주·전남지부 14일 심포지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4일 오후 3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6층 국제회의실에서 인권을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민변 광주·전남지부 창립 10주년을 맞아 '최근 인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시간30분 가량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와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등 최근 논쟁거리가 된 인권분야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는 한편, 법적 구제와 개선방안 등이 제시된다.

주제발표는 ▲'표현의 자유 현황과 과제'(민변 광주·전남지부 김정호 사무국장) ▲'집회·시위 자유의 현황과 과제'(김상훈 변호사)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조상균 전남대 교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50억대 짝퉁 가방 유통

일당 18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은 11일 유명 상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가방 등을 국내에 유통시킨 유통업자 송모(41)씨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가짜 명품 가방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판매한 판매업자 김모(36·광주시 북구 두암동)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6월 초께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보관 창고를 마련해 놓고 58억원 상당의 루이비통·샤넬 등 3천971점의 가짜 브랜드 가방과 지갑을 서울 동대문시장과 광주 양동시장 등 일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은 송씨로부터 위조된 유명상표를 사들인 뒤 소비자들에게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유명상표로 위조된 제품이 광주에서 대량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탐문수사와 통신수사 등 역추적 수사를 펼쳐 송씨 등을 검거했다. /이종행기자 golee@

무등산 옛 길 횡단보도 설치 지난 5월15일 개방된 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무등산 옛길 1구간(동구 산수동~충장사~원효사) 7.75km 구간 5곳에 11일 횡단보도가 설치돼 탐방객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 등은 무등산 옛길을 찾는 시민이 매달 1만5천명을 넘어서면서 탐방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제기되자 교통안전대책을 수립, 횡단보도 설치 및 경보등 10개, 과속방지턱 6개소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원조교제 신고 협박

투숙객에 금품 뜯어

광양경찰은 11일 "원조 교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모텔에 들어가려는 남·여 투숙객들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김모(22)씨 등 3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7월 28일 새벽 4시55분께 광양시 중마동의 한 모텔 입구에서 A(37)씨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한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려는 A씨에게 "원조교제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뒤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A씨의 바지를 벗기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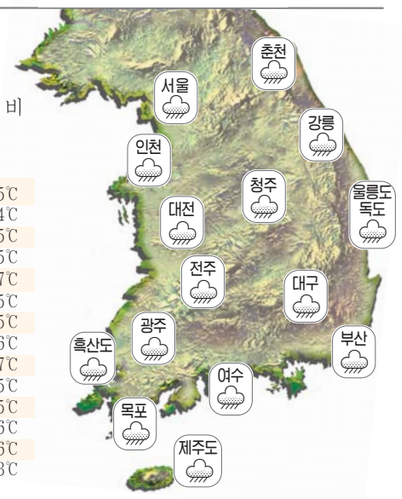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오늘 날씨

해뜸 06시 13분 해짐 18시 44분 달뜸 23시 30분 달짐 13시 47분

선선한 주말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 온 뒤 개겠다.



광 주	흐리고 비	18/25℃
목 포	흐리고 비	18/24℃
여 수	흐리고 비	19/25℃
완 도	흐리고 비	17/25℃
구 례	흐리고 비	17/27℃
해 남	흐리고 비	17/25℃
장 흥	흐리고 비	19/25℃
고 흥	흐리고 비	18/26℃
순 천	흐리고 비	17/27℃
영 광	흐리고 비	16/25℃
진 도	흐리고 비	17/25℃
전 주	흐리고 비	17/26℃
남 원	흐리고 비	15/26℃
흑산도	흐리고 비	18/2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낮음	경고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서~북서	1.5~2.5m

	밀물	썰물
목포	06:50 19:55	12:04 --:--
여수	00:48 14:50	07:30 21:1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날 씨						
최저/최고	17/28	18/26	18/27	16/27	17/28	17/27

인터넷 성매매 절반은 10대 소행

광주·전남 43건 적발

19명 구속 118명 입건

광주·전남지역의 인터넷 성매매 10건 중 9건 이상은 채팅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10대 청소년의 성매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조직적인 성매매에 나서는가 하면 성매매를 빌미로 성구매 남성을 협박하는 공갈단까지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부터 42일간 '인터넷·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137명(43건)이 적발됐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1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는 76명(26건)이 단속돼 3명이 구속됐고, 전남은 성매매 사범 61명(17건) 가운데 16명이 구속됐다.

항목별로는 전체 인터넷 성매매 적발건수(21건) 가운데 95%(20건)가 채팅사이트를 통해 이뤄졌다. 또 청소년의 성매매는 22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청소년은 본인 이름으로 채팅방을 개설한 뒤 자신이 직접 성구매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청소년들은 가출 소녀 등을 협박·폭행해 강제로 성매매에 나서게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구매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상습 공갈단까지 등장했다. 전남경찰은 지난달 13일 인터넷 채팅으로 성구매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하는 수법으로 모두 10명으로부터 1천500여만원을 뜯어낸 B(15)양 등 7명을 입건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지갑 훔친 20대 신용카드 쓰다 덜미

쌍나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돈을 훔쳐 달아난 투숙객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

○…1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4)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문화동 Y모텔 카운터에서 현금 120만원과 신용카드 2장이 든 손지갑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보름 전부터 이 모텔에서 투숙해온 김씨는 이날 객실 열쇠를 맡기러 카운터에 갔으나 아무도 없자 지갑을 훔쳤는데,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돈을 훔쳤다"고 진술.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던 중 김씨가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정보를 입수, 김씨를 검거.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